

세계 정치와 하나님 (1)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시편 82 편 1-8 절

- 1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데도다.
- 2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 3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 4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꺾도를 벗어났도다.
-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 7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 8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역병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가정 및 경제 활동의 규제를 언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의 생존 여부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긴장이 커지고 있으며, 얼마전 치러졌던 국회의원 총선 관련 부정 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행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 하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처벌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편안히 살도록 해주시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간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시는가”라는 제목을 두고 성경을 기초로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시리즈의 첫번째로 시편 82 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임명하여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관리 체제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세계 관리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치 상황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대한 반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분들을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나도 과거에 그러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정치 개입 반대주의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그 주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유대인 정치-종교 지도 단체이었던 산헤드린 등에 대하여 정치적 행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민중들이 이러한 식민 제국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극심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실제로 경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33 년반 동안 유대인으로 사시는 동안에 다른 많은 애국 이스라엘 인들처럼 민중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자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분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렇게 주 예수님이 비정치적 삶을 사셨고 그분의 가르치심도 다분히 비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21 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역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그 와중에서 오직 신앙을 잘 지킴으로써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늘 나라”에 가는 날만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모든 시대에서 세상의 정치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정치에 자주 개입하셨고, 오늘날도 이 세상의 잘못된 정치 상황에 마음 아파 하시며, 정치 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에 무관심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잘 사는지 못사는지 무관심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견해는 하나님을 인간사에 무정하신, 마치 낳기만 하고 자식을 내팽개쳐 두고 그가 잘되던 잘못 되던간에 상관하지 않는 무정한 부모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이는 전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의 성장과 건강과 안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한 그들을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지는 않으며, 자식의 처한 사정이 너무 힘들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정치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필요한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민족에게 그의 때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정치적인 삶을 사셨고 비정치적인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하여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33년 반동안 인간으로 사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고 알게 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치관을 알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의 정치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셨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세계 정치를 인간들에게만 맡겨 두셨는지, 아니면 자신의 대리 행정관들을 임명하여 통치하도록 하셨는지 시편 82편의 공부를 통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 행정관들을 임명하신 하나님

시편 82편은 쉽게 이해되는 시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자들과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와 관리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점에서 출발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신 행정관들이 ‘신들 (Elohim = gods)’이며 이들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most High)’이라고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 10:34-36에 인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칭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요 10:3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시편의 정확성을 인정하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신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천사들로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세상에 보낸 행정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대통령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은 상위급에 속하는 수천사들[high angels]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신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민족들의 행정관으로 임명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요?”라는 질문이 있겠지요? 그러한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해와 달과 하늘의 군대들을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한다고 비판하고, 이들은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하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엄히 경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4:19] 또 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네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늘의 군대, 즉 천사들은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할당해 놓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경배하는 행위는 십계명의 두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만으로 보아서 수천사들에게 민족들의 통치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 장에서 다시 한번 민족들이 살 땅의 경계의 설정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경계 설정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sons of God]” 정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번역과 표준 영어 번역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끝 부분에 있는데 이 두가지 번역들을 소개 합니다.

[KJV Deuteronomy 32: 8] When the Most High divided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separated the sons of Adam, he set the bounds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children of Israel.**

[ESV Deuteronomy 32: 8] When the Most High gave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divided mankind, he fixed the borders of the peop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ons of God.**

이 구절의 번역은 ESV 가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 이유는 사해 문서 [Dead Sea Scroll]로 발견된 신명기의 기록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ons of God]”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¹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인 수천사들의 수에 따라서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4:19 절과 신명기 32:8 절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민족들의 통치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경계를 정하면서 배정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3. 행정관들의 부패

하나님께서 임명한 행정관들은 ‘강한 자들 (the mighty)’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 받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 모아 마치 대통령이 지방 장관 회의를 주재하듯 행정관 회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아삽은 1 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행정관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정관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 들이려 하느냐? [2 절]” 하나님을 대신하여 민족들을 다스리도록 임명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적 기준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며, 오히려 사악한 자들을 편들어 주는 등 옳지 않게 통치한다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지 않게 민족들을 통치하는 천사들을

¹ Michael S. Heiser, *The Unseen Realm*, Lexham Press, Bellingham, WA, 2015: p.113 번역의 근거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해 문서가 훨씬 오래 전에 쓰여진 성경이므로 이를 근거로한 ESV 가 이 구절의 경우에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나라들, 민족들의 정치가 잘못 되고 악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질책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점에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시편의 공부를 통하여 그 분을 바로 알게 되기 원합니다.

3 절과 4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책을 읽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민족과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어떤 통치 원칙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지 이 구절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고아들, 고난을 겪는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베풀며 이러한 취약한 계층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처럼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토를 넓히고 외세를 제압하여 국가 안보를 강력하게 지키는 일도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외국과 교역을 잘 하여 큰 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쌓은 부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에 게을리 하여 백성이 시달리고 불평 불만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들과 북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는 커녕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만 하는 지배 세력을 두호하는 옳지 못한 정치를 했습니다. 나라들의 통치를 책임진 행정관 천사들은 이러한 의롭지 못한 왕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매우 의롭지 못한 행정관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사명을 주고 민족들을 다스리라고 보낸 천사들이 이렇게 사악한 통치 행위를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존재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을 그 반대로 악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와 한패가 된 사탄의 추종자가 된 악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천사들의 상당 수가 사탄의 편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7-9]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있었던 이 전쟁, 즉 천사장 마이클 (Michael 미가엘로 번역됨)이 지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군대 간에 있었던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진 일에 관하여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11 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왕국에서는 사탄의 세력도 쫓겨 나고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간에 전쟁을 치러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정의가 수립되려면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에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진정한 원수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므로 우리가 혼돈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5:43-44]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원수’는 사탄과 그 추종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바”는 다음 구약의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20]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신명기 19:21] 네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 모세의 계명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적용할 처벌 규정이었습니니다. 오늘날의 형사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원수”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적용할 도덕적 기준으로서, 비록 나에게 원수처럼 악하게 대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옛날 모세의 형사법을 적용하지 말고, 이제는 자비와 용서의 법으로 대하라고 명하심으로써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야 함을 가르치신 참으로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의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세력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원수는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세력들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와 어둠 가운데 노예로 잡아놓고 온갖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과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의도적으로, 때로는 극렬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즉 전쟁이 공중의 세력을 잡은 세상 권세자들, 즉 사탄의 편에서는 악한 행정관 천사들과의 싸움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11-12]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정사들 [principalities]과 권능들 [powers]과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rulers of darkness of this age]과 영적 사악함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이러한 세력들은 먼저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그분의 선한 뜻으로 세상을 관리하도록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하와가 그런 것처럼 사탄의 간계와 속임수에 넘어가 그의 어둠과 사악한 계획과 뜻을 좇아 세상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권력자들이며, 또한 인간들 중에서 이들의 간계와 설득에 넘어가 사탄을 알게 모르게 추종하며, 그와 한 편이 된 악과 어둠의 세력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정치, 문화, 미디어, 경제, 예술과 음악, 교육, 과학, 의학,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도 깊숙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활발히 활동중임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나약하게 생각한다면, 마치 히틀러 나찌 권력이 독일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때에 함께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독일의 소위 기독교인들처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82 편의 5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한탄하십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비슷한 한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34]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4.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태를 내려다 보시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둠속에 다니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구나”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민족들을 통치하라고 소명을 받았으나 사탄의 편으로 돌아서서 소명 수행하기를 거부한 악한 행정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행정관들이 어떤 벌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응징을 받을까요? 6 절과 7 절에 그들이 받을 응징에 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6 절은 이들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이들 [children] 입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고 율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8:4-7]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다시 말하여,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신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의 아이들,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받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소명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늘 왕국의 존재들이며,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태초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늘 왕국 [Kingdom of Heaven]에 사는 존재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존합니다.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도록 소명을 받은 행정관들 역시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7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행정관들에게서 영생의 특권을 제거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영생하지 못하고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 통치자들 중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즉, 로마의 악한 네로 황제, 나찌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등의 사악한 인간 통치자들처럼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악한 존재들, 그들이 천상의 존재들이던, 인간들이던 간에 영원토록 불못 [Lake of Fire]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10,15]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도 로봇이 아니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며,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사탄의 무리가 이 땅에 쫓겨온 것입니다.

5. 우리의 자세

우리는 시편 82 편에 대한 심층적 공부를 통하여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늘 왕국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며 이들은 인간보다 먼저 영생하는 존재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도록 소명을 받은 소위 “하나님의 행정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흑암의 통치를 하여, 이 세상의 기준과 도덕이 모두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행정관들에게서 영생의 특권을 빼앗고 영원토록 불의 못에 던져져 고통을 받을 것임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 땅의 나라들에서 어둠과 악의 통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은 과연 어떤 관점과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위의 사실을 제대로 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을 제대로 보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며, 이 시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매일 주님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22-23]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세력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능히 대적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크리스찬 개인의 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참된 교회가 주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교회적 싸움이기도 하며, 한 국가의 기독교인 전체가 그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원칙과 계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 되도록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합목적으로 연합하여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10-13]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